월정
WOLJEONG

특별호 •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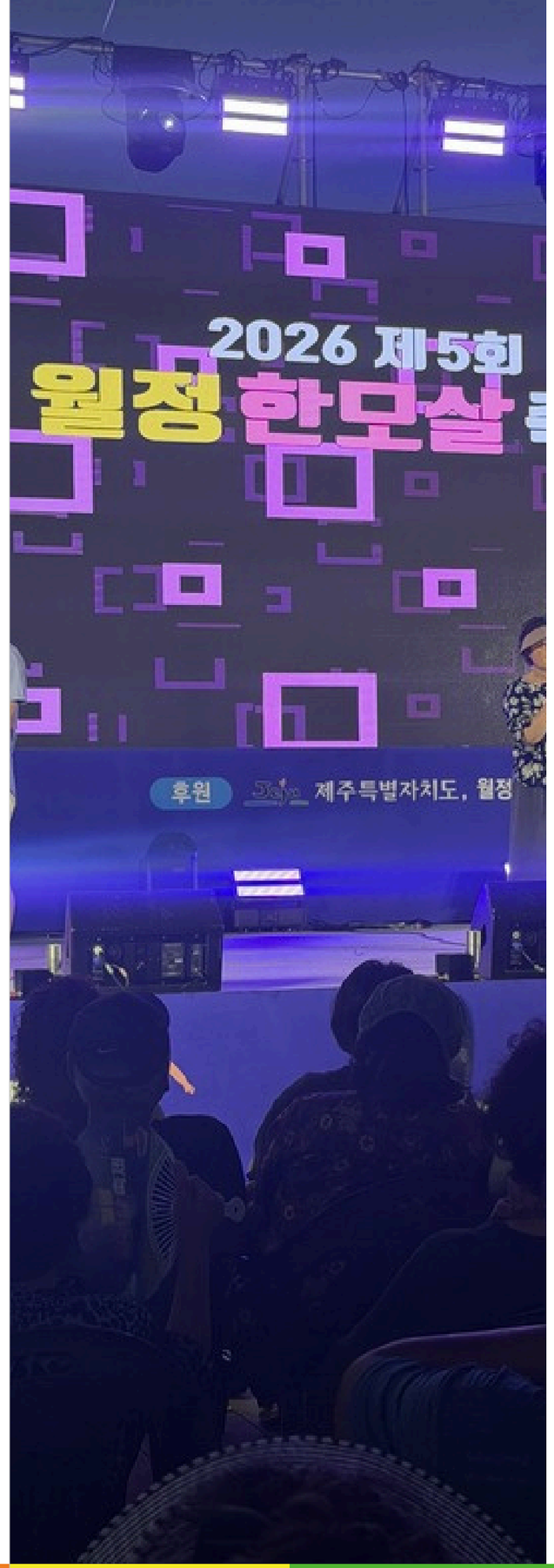
달이 머무는 물가, 월정(月汀)

월정리의 보물 세계자연유산 동굴
땅 아래 흐르는 시간 | 04

주민이 고른 이름 월정 브랜드
로고 탄생기 | 16

2026, 월정리의 1년
축제와 사람들 | 20

2027, 머무는 마을
달빛센터 이야기 | 32



월정 WOL JEONG

차례

01 여는 글

02 월정리 한눈에

04 월정리의 보물

08 밭담 따라 마을 산책

10 월정리에서 머무는 하루

14 머물 곳·먹을 곳

16 주민이 고른 이름

18 마을이 빛나는 자리

20 월정리의 1년

26 월정리 사람들

28 아이들 신문

30 이장님과의 대화

32 2027, 머무는 마을

여는 글



달이 머무는 물가, 월정에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월정리는 마을의 이름과 얼굴을 새로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고른 마을 로고가 생겼고, 한모살 축제와 풍물, 마을학교 아이들의 신문까지 마을 곳곳이 분주했습니다.

월정은 바다와 모래, 땅 아래 동굴까지 자연이 내어 준 것이 많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풍경을 오늘까지 지켜 온 것은 물질하는 해녀와 밭을 일구는 어르신들, 마을 일에 손을 보태 온 이웃들입니다.

이 책은 그 1년의 기록이자, 월정을 찾는 손님들께 드리는 초대장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바닷가가 아니라 하루쯤 머물고 싶은 마을, 그것이 우리가 함께 그리는 월정리의 내일입니다.

제40대 월정리장 김경찬

월정리 한눈에

달이 머무는 물가, 월정

제주시 구좌읍 북동쪽, 김녕과 행원 사이 바닷가에 자리한 마을. 마을 사람들이 '한모살'이라 부르는 크고 넓은 모래밭이 초승달처럼 휘어 있고, 그 땅 아래로는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이 흐릅니다.

월정(月汀)이라는 이름은 '달이 머무는 물가'라는 뜻입니다. 검은 현무암 빌레와 하얀 모래, 밭담 안의 초록 당근밭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듭니다. 바닷바람을 받아 도는 풍력발전기도 이제 마을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땅의 3분의 1 가까이가 밭입니다. 모래 섞인 밭에서 당근과 마늘, 양파가 자라고, 바다에서는 서른여덟 명의 해녀가 지금도 물질을 이어 갑니다.

바다에는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마을에는 풍물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모두를 담은 월정리 안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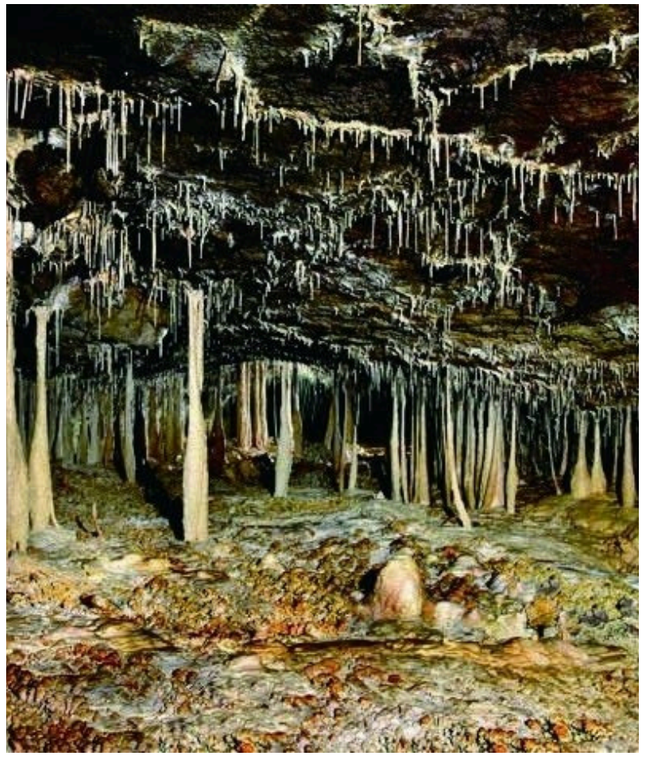
바람과 돌담이 어우러진 마을

구좌읍 월정리



땅 아래 흐르는 수천 년의 시간

월정리의 보물





용천동굴과 당처물 동굴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용암이 만든 동굴인데도, 위를 덮은 조개껍데기 모래의 석회 성분이 빗물에 녹아 스며들면서 종유석과 석순이 자랐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이 동굴들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용천동굴은 2005년 전신주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약 3.4km, 안쪽에는 800m에 이르는 호수가 숨어 있습니다. 당처물동굴은 밭을 고르다 모습을 드러낸 길이 110m의 작은 동굴입니다.

동굴 위 땅에는 지금도 밭과 마을 길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근을 캐고 여행자가 걷는 바로 그 아래에, 세계가 함께 지키는 유산이 잠들어 있습니다.

두 동굴은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지만, 발아래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월정의 산책은 특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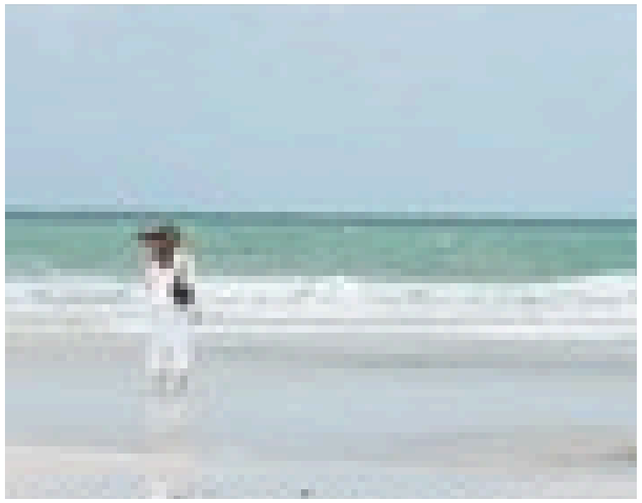
동굴 사진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월정리의 보물

한모살, 초승달 모래밭







월정해변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모살'이라 불렀습니다. 크고 넓은 모래밭이라는 뜻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따라 하얀 모래가 초승달처럼 완만하게 휘어 있습니다.

모래가 희고 물이 얕아 바다색이 유난히 맑게 빛납니다. 썰물이면 모래밭 가장자리로 검은 빌레가 드러나, 바위 틈의 작은 바다 생물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모살의 모래는 조개껍데기가 잘게 부서져 쌓인 것이라 유난히 흽니다. 이 모래가 바람을 타고 뭍으로 올라가 동굴 위를 덮은 덕분에, 용암동굴 안에서 종유석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은 해마다 7월에 문을 엽니다. 여름이면 해수욕과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이른 아침과 해 질 녘의 한모살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물가에 비친 달빛을 보면 왜 이 마을이 '달이 머무는 물가'인지 알게 됩니다.



용암이 바다를 만난 자리

바당빌레



검은 돌담, 초록 밭

진빌레 밭담길







진빌레 밭담길을 걷다

'진빌레'의 '진'은 길다는 뜻의 제주말입니다. 너럭바위 지대가 길게 이어진 곳이라는 뜻이지요. 모래 섞인 밭을 검은 현무암 돌담이 둘러싸고, 그 안에서 당근과 마늘이 자랍니다.

밭담은 밭을 일구며 골라낸 돌을 쌓아 만든 담입니다. 돌 사이 틈으로 바람이 빠져나가 거센 바닷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흙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제주 밭담은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오랜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해녀들의 쉼터였던 돗바당에는 용천수가 솟는 물통 '돈코물'이, 바닷가에는 바다를 살피던 돌 동산 '보리수덕'이 지금도 자리를 지킵니다.

진빌레 밭담길은 올레 20코스, 김녕·월정 지질트레일과 함께 마을을 지납니다. 돌담 사이를 걸으며 섬사람들의 오랜 지혜를 느껴 보세요.



아침 바다부터 달빛 밤까지

머무는 하루







아침에서 한낮까지

오전 7시 — 사람 없는 한모살을 걷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드러난 검은 빌레가 아침 빛을 받고, 파도 소리만 낮게 이어집니다. 밤새 밀려온 모래 위에는 아직 발자국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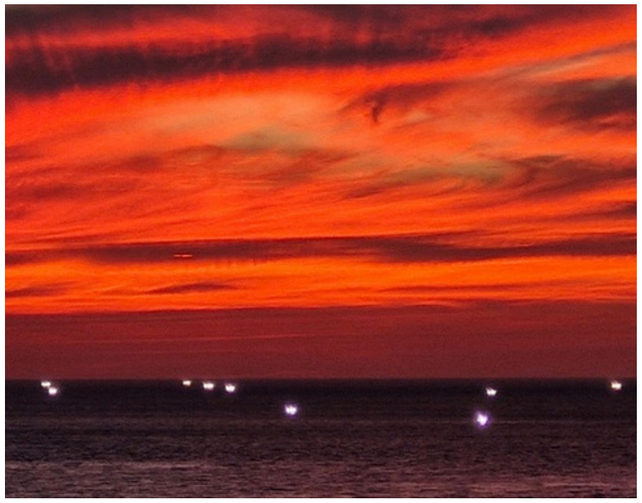
오전 10시 — 진빌레 밭담길로 들어서면 바람 소리와 돌담만이 남습니다. 당근밭 사이로 올레 20코스의 리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보세요. 돌담 너머로 바다가 언뜻언뜻 보이고, 밭에서 일하는 주민과 눈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정오 — 마을 식당에서 바당의 맛을. 제철 해산물로 차린 한 끼가 걷느라 출출해진 속을 든든히 채워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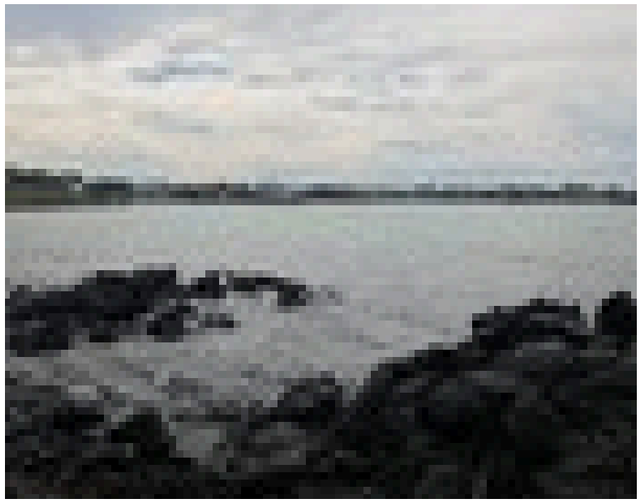
오후 2시 — 물때를 맞춰 바당빌레를 걸으며 용암이 굳어 만든 바위 모양을 살펴보세요. 바위 틈 웅덩이마다 작은 바다가 담겨 있고, 그 안에서 고둥과 작은 게가 움직입니다.

머무는 하루

노을에서 달빛까지







오후 5시 — 해가 기울면 풍력발전기 너머로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바닷가 등대 옆이 월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 자리입니다. 날개가 천천히 도는 사이 바다색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저녁 — 해안도로를 따라 불을 밝힌 카페와 식당에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창 너머로 어두워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저녁을 드세요. 낮의 북적임이 빠져나간 뒤라 파도 소리가 한결 가까이 들립니다.

밤 — 보름달이 뜨면 다시 한모살로. 물가에 달빛이 길게 내려앉고, 파도가 그 빛을 조용히 흔듭니다. '달이 머무는 물가'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머물러야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월정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고, 내일 아침 다시 조용한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월정 WOL JEONG



하루쯤 머물러도 좋은 마을

월정의 저녁

머물 곳

월정에서 쉬어 가세요







월정리에는 바다를 마주한 카페와 숙소, 마을 사람들이 오래 지켜 온 식당들이 있습니다. 걸어서 닿는 거리 안에 하루를 보낼 곳이 모여 있습니다.

■ 숙소
— 바다 가까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민박
■ 카페
—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를 바라보는 카페들
■ 식당
— 제철 해산물과 제주 음식을 내는 마을 식당

하룻밤 머물면 관광객이 빠져나간 저녁의 고요한 바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서는 주민들의 발걸음까지 월정의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행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업소별 위치와 연락처는 월정리 웹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마을 길과 바다를 아껴 주시고, 밭담 안 농작물은 눈으로만 보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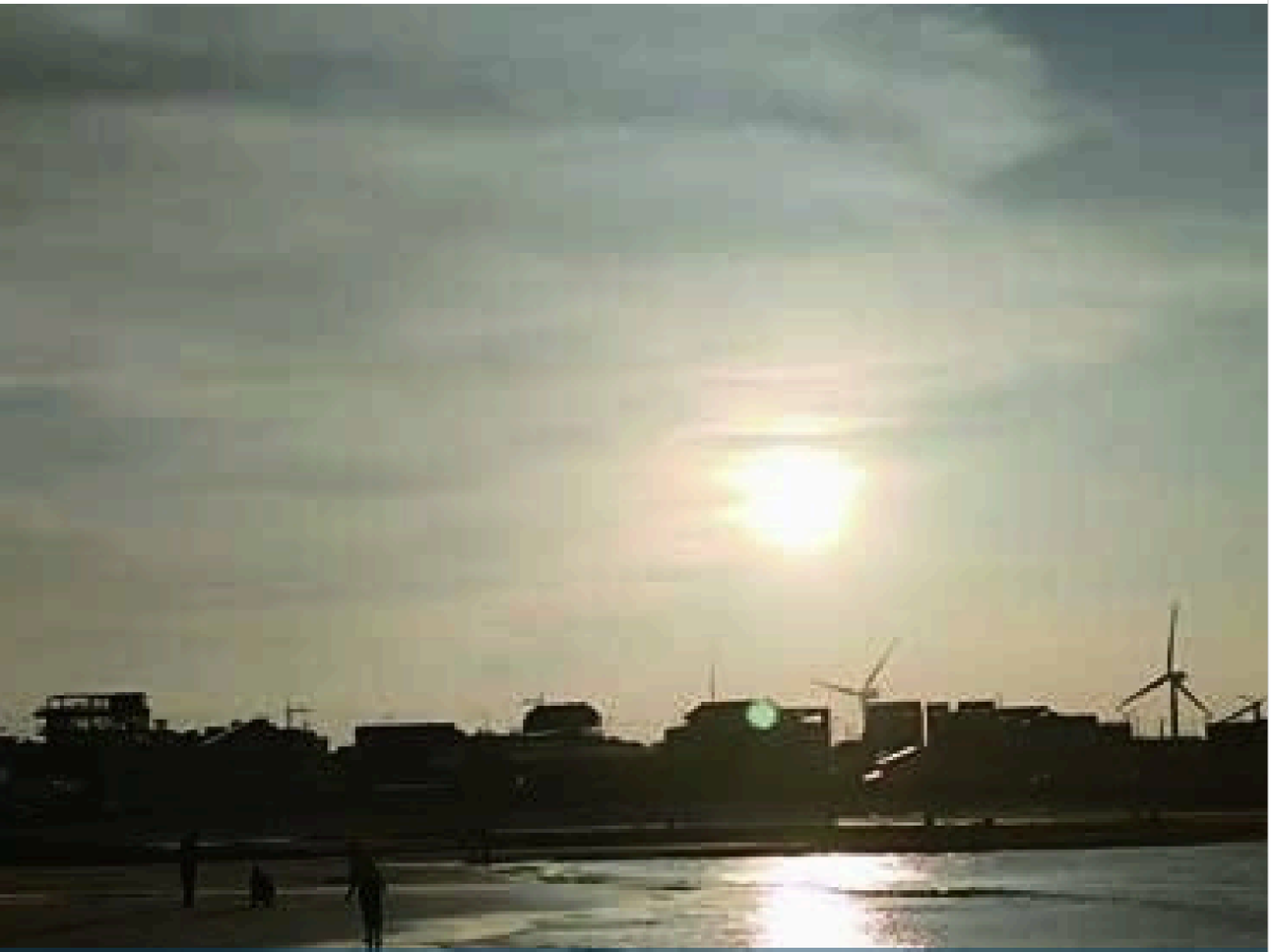


월정리 안내

한모살(월정해변) · 바당빌레 · 진빌레 밭담길 · 해안 풍력발전기 노을 자리 ·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비공개)

오시는 길
제주공항에서 동쪽 해안 방면으로 자동차로 약 50분. 제주시내에서 동일주도로를 지나는 버스를 타고 월정리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올레 20코스가 마을을 지나갑니다. 걷는 여행자라면 김녕에서 해안을 따라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달이 머무는 물가
월정(月汀)
주민이 고른 이름





주민이 고른 이름

월정
WOLJEONG

보름달 밝은 밤, 테우를 타고 바다에서 마을을 바라보니 물가의 반달 같아 '월정'이라 불렀다고 전합니다. 달이 머무는 물가, 이 이름 안에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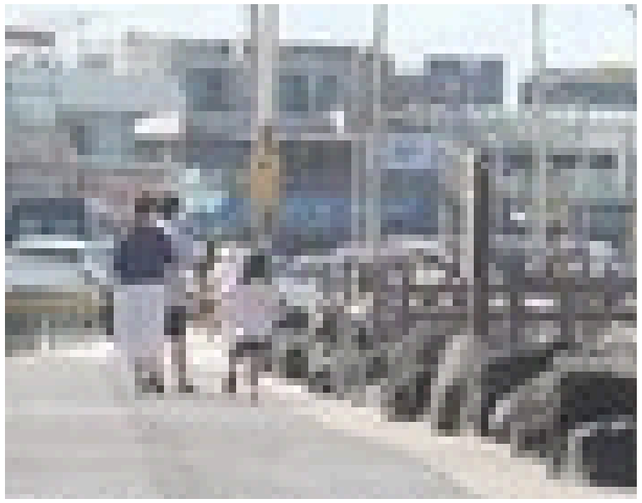
로고는 올해 초 첫 스케치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시안 가운데 주민협의체가 네 개안을 추렸고, 2026년 8월 주민들이 스티커 투표로 직접 골랐습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마을 풍경을 네 가지 색 아이콘으로 담은 안, 바로 위의 로고입니다.

슬로건은 주민 의견을 모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마을 곳곳과 2027년 문을 열 「달빛센터」로 이어집니다.

마을이 빛나는 자리







주민이 고른 브랜드가 마을 풍경 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을 어귀에는 월정을 알리는 진입 표지가, 밤길에는 달빛을 닮은 '빛의 거리'가, 바닷가에는 사진을 남기기 좋은 포토스팟이 생깁니다.

이름과 로고가 생긴 다음에는 그것이 놓일 자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색, 같은 글씨가 마을 어귀부터 바닷가까지 이어질 때 월정은 하나의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마을이 함께 준비하는 이 공간들에는 표지 하나, 조명 하나에도 '달이 머무는 물가'라는 월정의 이야기를 담으려 합니다.

관광객에게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주민에게는 우리 마을이라는 자부심이 되는 공간들입니다.



달빛이 머무는 마을 길

빛의 거리



2026 월정리의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함께 배우고 나누다

봄은 마을이 한 해 농사와 물질을 다시 여는 계절입니다. 올봄 월정리는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4월 17~18일, 마을 주민들은 부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마을이 걸어온 길을 직접 보고 들으며 월정리의 내일을 함께 그려 본 시간이었습니다.

4월 22일에는 바다의 안녕을 비는 용왕맞이 굿이 열렸습니다.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마을이 한 해의 무사와 풍어를 함께 비는 자리입니다. 제상에는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이 올랐습니다.

4월 30일에는 부녀회가 음식을 차려 마을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챙기는 마음이 오랫동안 월정리를 지탱해 왔습니다.

여름, 한모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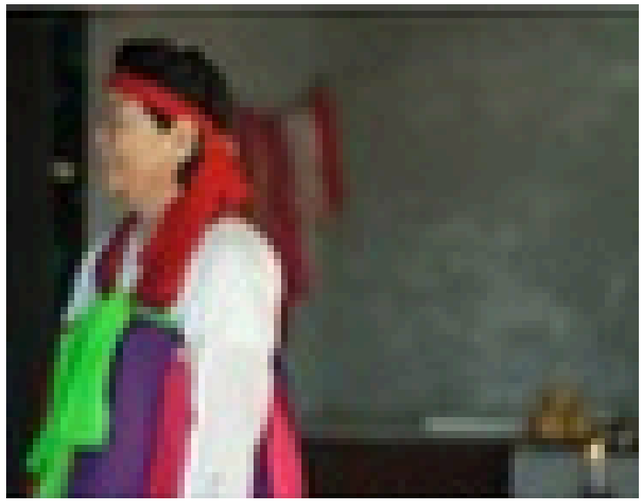


여름은 한모살이 가장 붐비는 계절입니다. 해수욕장은 해마다 7월에 문을 엽니다.

2026년 7월 25일에는 제5회 월정 한모살축제가 열렸습니다. 월정리마을회가 주최·주관하고 마을 노인회·부녀회·청년회가 힘을 보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해변의 옛 이름을 그대로 내건 여름 잔치입니다.

낮에는 무대 위 연주가, 밤에는 노래와 댄스 공연이 해변을 채웠습니다. 부녀회 천막에서는 해물라면 같은 먹거리를 내었고, 바다 위로 터진 불꽃놀이가 여름밤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에는 주민들이 스티커 투표로 마을 로고를 골랐습니다. 음력 7월 14일에는 본향당에서 당굿이 열립니다.







가을, 함께 걷고 어울리다

가을의 월정리는 걷기 좋은 계절을 맞아 손님을 맞습니다. 올레 20코스를 걷는 사람들이 밭담 사이로 마을을 지나고, 밭에서는 겨울에 거둘 당근이 자랍니다.

세계유산축전 기간에는 마을굿과 천연 염색 체험으로 마을의 문화와 옛 살림을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리민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온 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웃고 응원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11월에는 한 해 동안 다듬어 온 마을 브랜드 작업이 최종 보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민이 고른 로고가 이제 마을의 얼굴이 됩니다.

겨울, 당근밭과 바다

겨울은 월정리 밭이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구좌 당근이 제철을 맞아, 밭담 안에서는 수확하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바다도 쉬지 않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도 해녀들은 물때에 맞춰 바다에 들고, 여행자가 줄어든 한모살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는 본향당에서 당굿이 열립니다. 마을의 안녕을 비는 오랜 풍습입니다. 연말과 새해에는 마을 총회와 신년회의에서 한 해 살림을 돌아보고 새해 일을 의논합니다.

올해 1월에는 마을 로고의 첫 스케치가 그려졌습니다. 달이 머무는 물가의 새 얼굴은 겨울에 시작된 셈입니다.









마을을 깨우는 북소리

풍물패



바다의 사람

36년 월정 바다에서
물질해 온 해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진 월정리 마을홍보영상

월정 바다의 물때와 바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녀입니다. 바다에 들어가 소라와 성게를 캐며 마을 앞 바다를 지켜 온 분들입니다.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문화가 지금도 월정 바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정 바다에서 36년, 그 물질의 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물때가 맞는 날이면 해녀들은 테왁을 안고 바다로 나갑니다. 숨을 참고 들어가 캘 만큼만 캐고, 물 위로 올라와 숨비소리를 내뱉습니다.

정해진 때에만 바다에 들고 어린 것은 남겨 두는 약속은, 바다를 오래 지키기 위한 해녀들의 지혜입니다.

바다를 아끼며 함께 살아온 그 시간이 오늘의 월정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월정의 매력은 결국 사람

소라를 손질하는 부녀회의 손, 운동장에 울리는 풍물패의 북소리. 월정리의 하루는 이웃의 손길로 채워집니다.

바다와 모래, 동굴이 월정리의 자랑이라면, 그 결을 지켜 온 것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앞 바다에서는 서른여덟 명의 해녀가 물질을 잇고, 밭에서는 어르신들이 당근과 마늘을 가꿉니다. 아이들은 마을학교에서 기자가 되어 마을 이야기를 받아 적었습니다.

노인회와 부녀회, 청년회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보탭니다. 축제 무대 뒤에서, 마을 행사의 부엌에서 묵묵히 손을 보태는 이웃들이 월정리를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본 마을

월정마을신문







기자가 된 아이들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정마을학교 학생 기자단은 20번의 수업을 함께했습니다. 마을을 취재하고, 바다와 골목을 사진과 그림으로 담아 「월정마을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취재 수첩을 들고 마을을 걷고, 보고 들은 것을 글과 그림으로 옮기는 동안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을 새롭게 알아 갔습니다.

기사를 쓰고, 방송국을 찾아가고, 마이크 앞에서 직접 녹음하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월정리는 어른들이 미처 보지 못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서툰 글씨와 삐뚤빼뚤한 그림이지만 마을을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이 책 곳곳에도 「월정마을신문」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내일을 묻다

제40대 월정리장 김경찬 이장과
설촌유래비 앞에서
마을의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월정리 설촌은 약 400년 전으로 전해집니다. 마을 입구 설촌유래비 앞에서 김경찬 이장은 '무주개'에서 '월정'이 되기까지 마을의 내력을 짚었습니다. 바다와 달을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유래비에는 이 땅을 일구어 온 선조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음 걸음을 준비합니다. 주민이 고른 이름, 2027년 문을 열 「달빛센터」. 잠시 지나가는 바닷가가 아니라 하루쯤 머무는 마을로, 월정리의 내일은 주민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 갑니다.

달빛센터는 주민의 사랑방이자 여행자가 마을을 만나는 첫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온 2년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내일을 그리는 일입니다. 시작은 2022년 여름의 현장포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찾고 풀어야 할 과제를 함께 골랐습니다.

2025년 봄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해 12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뒤로 주민들은 견학을 다니고, 배우고, 투표하며 한 걸음씩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을 로고를 고르는 스티커 투표, 선진지 견학, 마을학교와 축제까지. 회의실의 계획이 마을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하나씩 모양을 갖춰 갔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마을 홍보영상도 함께 소개합니다. 영상은 웹페이지와 책 뒤쪽 QR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2027
머무는 마을

달빛센터

2027







마을의 새 자리, 달빛 센터

2027년 여름, 마을 거점 공간 「달빛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주민이 모이고, 여행자가 쉬어가고,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달빛센터는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모임과 배움이 이어지고, 월정을 처음 찾은 여행자가 마을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달빛센터'라는 이름에는 달이 머무는 물가, 월정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에서 머무는 마을로. 달빛센터는 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날, 월정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든 사람들

발행 월정리 마을회
사업 수행 아우리(AURI)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으로 제작
제주시 · 한국농어촌공사

사진 월정리 마을회, 「월정마을신문」
자료 「월정리」 세계자연유산마을 자료집
편집 및 디자인 바다쓰기

이 책의 글과 사진은 허락 없이
실을 수 없습니다.

월정리를 더 보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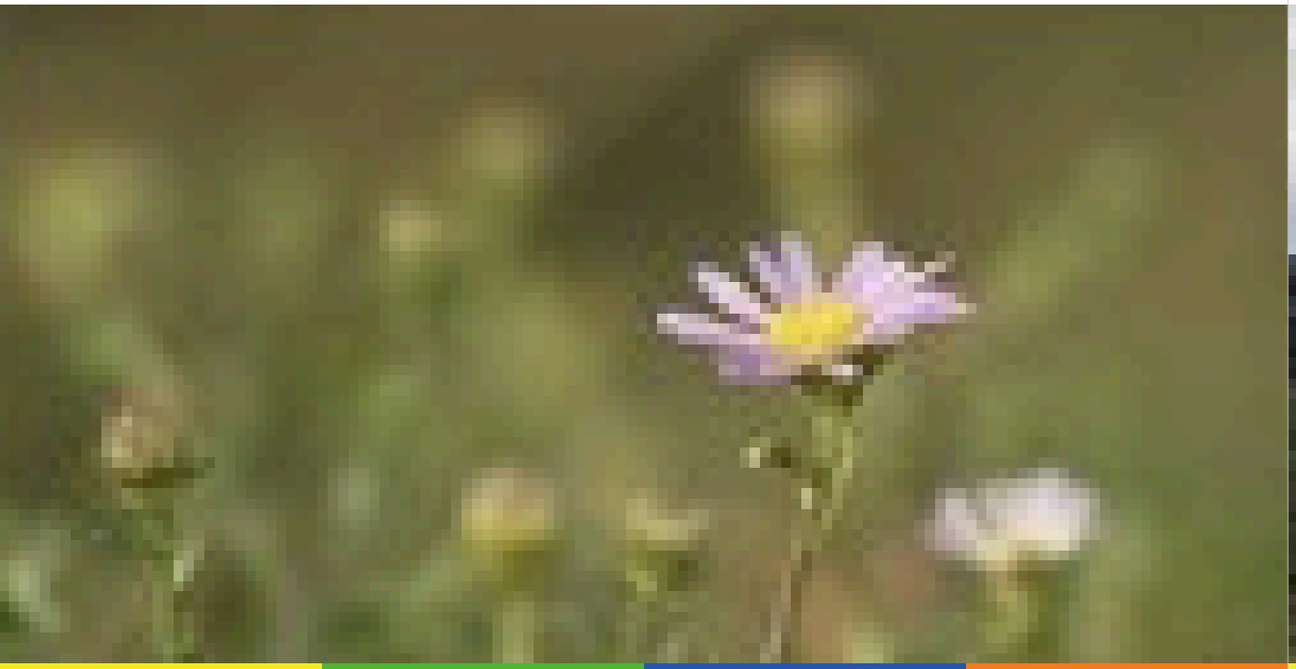
월정리 웹페이지
마을 소식과 머물 곳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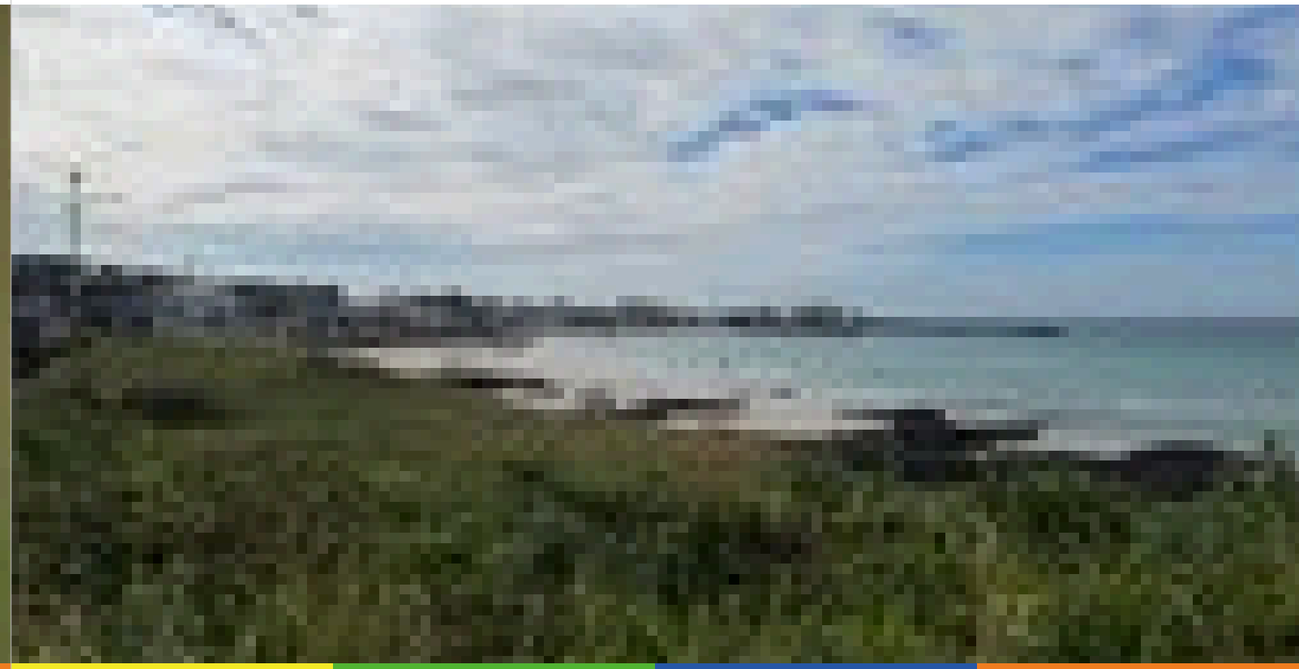
QR

마을 홍보영상
달빛 아래 월정리 이야기

QR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춰 보세요.







지나가는 마을에서
머무는 마을로

월정
WOLJEONG